★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 사무치는 그리움-12월의 추억

★ 민족사적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위대한 승리의 해

조선

주체111 (2022) 12

(798)

주체45(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CONTENTS

특별소식

특 집

오늘의 조선

소 식

표 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시험
발사 진행 사진 조선중앙통신
뒤표지: 송화거리의 야경 사진 황정혁

편 집: 신재철, 김정철, 최일선, 조철주, 승 룡

28

122

146

200

특별소식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조선로동당의 절대불변의 대적의지 엄숙히 선언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은 최대정점고도 6, 040. 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를 4, 135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제고함에 관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최우선국방건설전략이 엄격히 실행되고있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가 11월 18일 진행되였다.

이번 시험발사는 조선반도의 군사정치정세를 위험계선에로 집요하게 몰아가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대결망동이 한계를 초월하고 주권국가의 자위권까지 사사건건 도발로 매도하는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궤변들이 유엔무대에서까지 합리화되고있는 간과할수 없는 형세하에서 결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ㅈ09151751
321

321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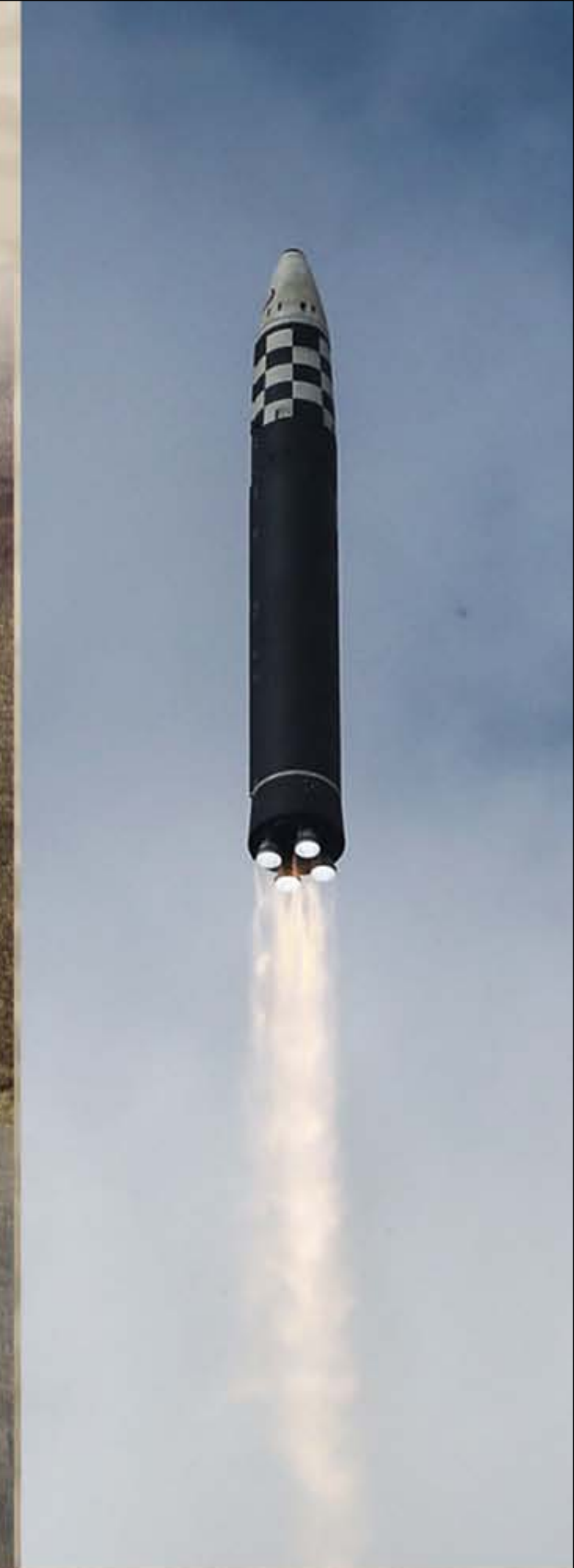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요간부들이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시험발사를 참관하였다.

현지에서 국방과학연구부문 지도간부들, 붉은기중대 지휘관들이 **김정은**동지를 영접하였다.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는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운용믿음성을 검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은 최대정점고도 6,040.9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km를 4,135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시험발사결과를 통하여 국가전략무력을 대표하게 될 신형중요전략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과 세계최강의 전략무기로서의 위력한 전투적성능이 뚜렷이 검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험발사성과에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위협도 억제할수 있는 신뢰할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 우리 국가주변에서의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이 로골화되고있는 위험천만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압도적인 핵억제력제고의 실질적인 가속화를 더 긴절하게 요구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정세하에서 미국과 남조선것들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에게 우리를 상대로 하는 군사적대응놀음은 곧 자멸이라는것과 저들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더욱 명백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성을 피력하시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들려는 적들의 침략전쟁연습광기에 우리 당과 정부의 초강경보복의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미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강화》와 전쟁연습에 집념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군사적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적들이 핵타격수단들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핵전략무기들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국방건설전략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식의 주체전략무기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대륙간탄도미싸일부대들과 모든 전술핵운용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여 임의의 정황과 시각에도 자기의 중대한 전략적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국방과학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과학자, 전략핵무기부대 전투원들은 공화국핵무력강화에서 중대한 리정표로 되는 력사적인 중요전략무기시험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녀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여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주시며 국방과학자, 전투원들을 열렬히 고무해주시고 국가핵전략무력강화를 위한 힘찬 진군길에 더 큰 힘과 백배의 용기를 안겨주시면서 영원한 승리의 진로를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절대숭배와 열렬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앞으로도 강위력한 전략무력을 가속적으로 건설하며 핵병기를 더욱 억척같이 틀어쥠으로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길이길이 보위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11월 18일에 단행된 《화성포-17》형시험발사에서 커다란 공헌을 세운 붉은기중대 전투원들과 국방과학연구기관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군수공장 로동계급들을 만나시고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현명한 결심과 탁월한 령도력으로 국방발전의 완벽한 지름길을 몸소 개척하시고 강력히 인도해주시며 세계최강의 전략무기 완성이라는 거대한 사변으로 공화국의 빛나는 존엄을 억세게 지켜주신 조선로동당과 국가, 인민의 걸출한 수령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흠모심을 뜨겁게 분출하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힘껏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의 국방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웅대한 목표를 관철해나가는 투쟁에서 순결한 충실성과 비상한 정신력, 뛰여난 과학기술력으로 이루어낸 거대한 결정체를 세계앞에 당당히 쏴올림으로써 날로 장성하는 조선의 군사적강세를 확신케 하고 공화국이 비축한 핵전쟁억제력의 가공할 위력을 만방에 힘있게 떨친 미더운 국방전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정을 담아 뜨거운 전투적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원대한 강군건설대업을 하나하나 이룩할 때마다 갖은 고생도 모두

인내해내며 당의 위업을 절대지지해준 우리 인민의 충심과 애국심에 고마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의 무조건적인 지지성원속에 떠받들려 태여난 우리의 《화성포-17》형은 분명코 우리 인민이 자기의 힘으로 안아온 거대한 창조물이며 전략적힘의 위대한 실체이고 명실공히 조선인민의 《화성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언제나와 같이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받들어주고 고무하고 떠밀어주며 끝없는 성공을 확신하고 기원해준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힘과 힘에 의한 대결이 곧 승패를 결정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약자가 아닌 제일강자가 될 때라야만 나라와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낼수 있다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룩한 성과에 절대로 자만함이 없이 두손에 억세게 틀어쥔 우리의 초강력을 더욱 절대적인것으로, 더욱 불가역적으로 다져나가며 한계가 없는 국방력강화의 무한대함을 향해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의 투쟁목표와 결심이 뚜렷하고 당에 무한히 충직한 국방과학기술대군과 영용한 군수로동계급이 있으며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는한 우리의 자위력은 세계최강의 지위에 올라서게 될것이라고 확신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언제나 자기 위업에 끝없이 충실해온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이 앞으로도 국가핵무력건설위업을 달성해나가는 전진로상에서 자기들이 지닌 막중한 사명감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무조건적인 관철정신으로 결사분투함으로써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확대강화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하늘같은 믿음과 상상할수 없었던 영광을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온 나라가 부러워하는 특전을 자기들에게 거듭거듭 돌려주시며 주체적국방건설의 휘황찬란한 래일에 대한 가슴벅찬 확신을 안겨주신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그이께서 안겨주신 특전과 믿음에 기어이 보답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위대한 국가전략무력 건설대업을 만대에 굳건히 이어놓을 드높은 결의를 다지였다.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0(2011)년 12월

사무치는 그리움-12월의 추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고결한 한생이였다.

해마다 12월이 오면 조선인민은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생애를 더욱 가슴뜨겁게 돌이켜본다.

마음속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시고 한평생 애민헌신의 자욱을 새겨오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100(2011)년 12월에도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계속 이어가시였다.

12월의 첫 일요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의 모란봉기슭에 자리잡고있는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시였다.

이날은 맵짜게 추운 날씨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유희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유희시설들의 가동정형과 급양봉사망들의 운영정형을 알아보시였다.

떠나시기에 앞서 그이께서는 이곳 일군들에게 유희장을 리용하는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주지 말고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라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며칠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당시 의사들은 그이께 이달 25일까지는 특별히 건강에 주의하셔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렸고 일군들도 지금의 몸상태로는 현지지도를 하실수 없다고 울면서 막아나섰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의 발걸음을 누구도 막을수 없었다.

함남땅을 찾으신 그이께서 첫날에 가신 곳은 함흥시의 한 농장에 새로 건설된 온실과 함흥편직공장이였다.

함흥시 회상지구농장에 새로 건설된 남새온실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2월

온실의 남새생산정형과 공급실태를 료해하시며 앞으로 수확고를 높여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도록 그 방도도 가르쳐주시고 함흥편직공장에서 설비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질좋은 편직물들을 많이 생산할데 대한 귀중한 교시를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다음날에도 현지지도의 길을 계속 이어가시였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 급수침전지와 성천강수출품출하사업소(당시), 흥남구두공장…

여러날에 걸쳐 도안의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떠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도의 일군들은 부디 건강을 돌보실것을 간절히 말씀올렸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오히려 일군들의 건강을 념려해주시였다.

이런 날과 날들이 흘러 위대한 장군님의 정신육체적과로는 겹쌓였지만 12월 15일 그이께서는 찬바람부는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평양시 통일거리에 있는 하나음악정보쎈터를 찾으시였다.

힘겹게 걸음을 옮기시며 이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종합

함흥편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2월

함흥편직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2월

적인 음악정보봉사기지가 훌륭히 일떠선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길로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매대들에 상품들을 가득 채워놓은것을 보니 추운 날이지만 마음이 후더워진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해놓았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다음날인 12월 16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길만은 절대로 떠나시면 안된다고 막아서는 일군들을 만류하시며 렬차에 오르시여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였다.

렬차에서 그이께서는 새해를 맞으며 수도시민들에 대한 물고기공급과 관련한 문건을 보시면서 친히 수송대책까지 취해주시였다.

그이께서 문건을 비준하신 때는 21시 13분이였다.

사랑하는 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정과 헌신으로 이어진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밤은 이렇게 흘러갔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음날 아침 달리는 렬차안에서 너무도 갑자기 심장의 고동을 멈추실줄을 정녕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위대한 어버이를 너무도 뜻밖에 잃은 상실의 아픔으로 하여 온 나라 인민은 언땅을 치고 가슴을 쥐여뜯으며 오열에 몸부림쳤다.

참으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동지의 한생이 그대로 비껴있는 주체100(2011)년의 12월이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더욱더 가슴깊이 새기고 그이께서 바라시던대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결의를 더욱 가다듬게 하는 12월이다.

글 강수정

성천강수출품출하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2월

흥남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2월

2. 8비날론련합기업소 급수침전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2월

하나음악정보쎈터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0(2011)년 12월

광복지구상업중심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0(2011)년 12월

주체100(2011)년 12월 15일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려는것이 당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무엇이 하나 생겨도 인민을 생각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먼저 걱정하는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태양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는것은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소원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 인민의 다함없는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와 숨결이 뜨겁게 어려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완벽하게 꾸리실 확고한 결심을 지니시고 주체101(2012)년 한해에만 하여도 40여차례나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실 영생홀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들을 꾸리는 문제 그리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령도풍모를 보여주는 영상사진문헌들을 모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의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글 강수정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외국인들

민족사적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위대한 승리의 해

조국청사에 특기할 사변들을 수놓은 주체111(2022)년이 저물어가고있다.

올해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앞에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반드시 실행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전면적발전에로 확고히 이행시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섰다.

투쟁과업도 무겁고 거창한것이였지만 직면한 도전역시 공화국의 70여년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가장 엄혹한것이였다.

조선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극도에 이른데다가 악성비루스의 류입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조성되고 폭우에 의한 피해를 입은것을 비롯하여 올해는 말그대로 사상초유의 시련의 해였다.

하지만 공화국은 하나의 전쟁을 치르는것과도 같은 난관을 완강히 이겨내며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인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떠올렸다.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인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혼연일체가 보다 굳건해지고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이 채택발포되였으며 최대비상방역전이 승리적으로 결속되고 사상최고의 열병식이 장엄하게 거행되였다.

세계굴지의 련포온실농장과 송화거리를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평양시에 또 하나의 대건축군이 웅장한 자태를 확연히 드러낸것을 비롯하여 조선로동당의 숙원사업이 현실로 펼쳐졌다.

자립경제의 기둥인 금속,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과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여러 부문들에서 소중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가 더욱 심화되고 수십년을 내다보는 전망적이고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설계, 추진되여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토대와 밑천들이 마련되고있다.

천만인민의 심장을 긍지로 부풀게 하고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올해의 성과들은 결코 시간의 루적과 더불어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담대한 배짱, 령활한 지략과 애국으로 불타는 불굴의 헌신이 안아온것이다.

본사편집부는 온 한해 조국수호전, 인민보위전, 거창한 창조대전의 최전방에서 모진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헤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령도가 펼친 주체111(2022)년의 사변들을 전한다.

글 최광호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리정표 마련

주체111(2022)년은 전당**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획기적인 리정표를 세운 조선로동당력사에 특기할 사변의 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을 강화하는 사업이 혁명의 장래를 위한 중차대한 과업으로 부각되고있는 새시대의 요구를 통찰하시고 당의 령도력을 강화하며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초급당강화를 당세포강화와 함께 전당강화의 2대과업으로 중시하시며 여기에 커다란 힘을 기울여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시여 기층당조직강화의 전환적계기를 마련해주시였다.

대회에서 당의 기층조직이며 기본전투단위인 초급당역할론, 초급당중시론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초급당비서들이 현시기 기본으로 틀어쥐고 집행해야 할 중요과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며 초급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주체111(2022)년 2월 26일-28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가 모든 초급당들의 조직력과 전투력, 활동성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초급당비서들의 정치실무수준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으로 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주체111(2022)년 2월 26일-28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해 존재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당이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는데서 현시기 초급당비서들앞에 나서는 중요과업들과 실천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강령적인 결론 《초급당비서들은 어머니당의 참된 정치일군이 되자》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
주체111(2022)년 7월 2일-6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조직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밝힌 결론에서 당생활지도부문 일군들의 기본임무와 당생활조직과 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주요4대원칙과 6대과업을 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차 선전부문 일군강습회

주체111(2022)년 3월 28일-30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1차 선전부문 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서한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당사상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데 대하여》를 보내시였다.

올해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와 조선로동당 제1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를 비롯한 대회합들이 조직되여 당내 각급 지도단위들과 부서들의 사업을 혁신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생활조직과 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4대원칙과 6대과업, 당선전일군들이 당중앙에 충실한 출력높은 확성기, 잡음없는 증폭기가 될데 대한 사상들은 전당과 온 사회를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사업은 뚜렷한 계기성과 력동성을 가지고 더욱 힘있게 진척되였으며 혁명을 인도하는 당의 령도적권위와 전투력이 더한층 강화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주체111(2022)년 6월 8일-10일

주체111(2022)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보고들을 청취, 분석하고 해당한 평가를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둘째 의정에 대한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먼저 지난 6개월간 국가정치활동과 관리, 국가의 발전과 위기대응관리측면에서 거둔 진일보의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의 령도력과 정책에 대한 전체 인민의 확고한 믿음이 더욱 공고화된것이야말로 그 어떤 물질적재부와도 대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치적성과이라고 평가하시고 모든 국사를 성공에로 령도하여 각 방면에서의 더 빠른 발전을 힘있게 견인해나갈 당중앙위원회의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원회의를 계기로 경제지도관리에서 새로운 변침점을 마련하여야 할 긴요성을 밝히시고 하반년도 당과 국가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과업을 천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시점에서 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질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방위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을 마치시면서 인민경제계획수행이자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고 헌신적복무임을 명심하고 모든것을 총집중하여 뜻깊은 올해의 계획들을 빛나게 완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포치한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정책집행을 위한 상반년도 투쟁에서 이룩된 긍정적인 성과들을 장려, 확대하고 결점들을 극복하며 올해에 내세운 방대한 과제들을 완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실행담보를 적시에 보강하는것과 함께 전당, 전민을 다시한번 각성시키고 궐기시키는데 이번 전원회의소집의 목적과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 《현 비상방역상황관리와 국가방역능력건설을 위한 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악성전염병위기를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을 회복하며 국가의 방역능력, 위기대응능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전략전술적인 방략들이 명시된 보고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방역사업이 돌발적인 중대고비를 거쳐 봉쇄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봉쇄와 박멸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현 상황에서 우리 당과 국가앞에 나서는 급선무는 방역사업에 내재하고있는 결점들과 페단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나라의 방역능력강화를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상반년기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수행을 위해 투쟁방향을 확고히 견지하고 많은 난제들과 위기상황을 완강하게 극복하면서 국가사업전반에서 중요한 경험과 교훈을 축적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면한 방역위기를 성과적으로 타개하는것과 함께 국가방역능력건설을 동시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하시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인 결론과 보고의 사상과 정신에 립각하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포치한 2022년도 투쟁과업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한 과학적인 대책안을 수립하는 분과별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전원회의는 종합된 의견들을 최종심의하고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과업들을 일부 조정함에 대하여》와 셋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국가방역능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울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넷째 의정 《당규약과 당규약해설집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서 전원회의를 결속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수립된 전진적이며 혁신적인 계획들은 류례없는 국난속에서 사소한 주저도 없이 당과 혁명의 요구앞에 용감히 나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자신심의 충만이고 충천한 용기이며 굳센 의지의 발현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그들을 통하여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전투적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대한 과업은 우리 인민이 당과 정부앞에 내린 지상의 명령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책무를 무겁게 새겨안고 전진하는 대오의 진두에 서서 사회주의건설과 방역대전의 두 전선에서 혁혁한 승리를 획득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는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유일적령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시련속에서 다지고다져온 불패의 전진동력으로 부흥강국의 새시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를 과감히 펼쳐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면모와 백절불굴의 전투적기상을 다시금 뚜렷이 과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주체111(2022)년 6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에서는 당규률건설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선결적인 중대과업, 중요로선으로 내세우고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당정치활동에서 혁명성과 전투성을 제고하며 당의 역할과 풍모를 세련시키고 개선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중요한 전략적당건설사상이 천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에서는 당의 당면활동과 당건설에서 나서는 주요과업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전당의 각급 조직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결정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하며 올해 당 및 국가사업전반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혁명적과업들을 포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중요하게 당안에 강한 규률준수기풍을 세우고 더욱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적당의 본성과 사명과 임무 즉 본래가 철저히 계승되고 사회주의집권당의 전투적강화발전을 위해서는 전당의 당조직안에 높은 정치성과 투쟁기풍, 혁명적인 작풍과 공산주의적도덕품행을 장려하고 배양시키는 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당규약 및 당규률준수기풍과 당의 로선과 방침집행정형, 건전한 작풍구현과 도덕생활정형에 대한 감독사업체계와 시정체계를 엄격히 세우는 것이 필수불가결의 선결과업으로 나선다고 지적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당규률건설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선결적인 중대과업, 중요로선으로 내세우고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당정치활동에서 혁명성과 전투성을 제고하며 당의 역할과 풍모를 세련시키고 개선강화할데 대한 총비서동지의 중요한 전략적당건설사상이 천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당규률건설에 관한 총비서동지의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당사업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대책들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당의 검열지도사업을 개선하고 당내부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타 중요문제들도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

주체111(2022)년 6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각급 당지도기관들의 사업체계를 개선정비하고 정치활동들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당중앙위원회 일부 부서 기구를 고칠데 대한 문제, 각 도당위원회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내올데 대한 문제, 당총무사업규정과 기요관리체계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 보위, 안전, 사법, 검찰부문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강화하며 당면하여 올해중 필요한 사업을 조직진행할데 대한 문제, 각급 당조직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과 사업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새로운 학습제도를 세울데 대한 문제, 전당적으로 근로단체사업을 중시하고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중요한 당사업문제들이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의 임무와 당면과업, 전당적으로 당정치활동에서 견지할 주요원칙과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11(2022)년 10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여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새시대 우리 당건설방향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력사적인 기념강의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난 10월 당간부양성의 최고전당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여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하신 기념강의 《새시대 우리 당건설방향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는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이께서는 기념강의에서 철저한 계승성과 참신한 혁신성을 결합시키고 당면한 혁명임무수행을 위한 당사업 강화와 혁명의 장래발전을 담보하는 전망적인 당건설을 배합하여 현격한 발전을 이룩하여온 지난 10년간의 려정을 총화하시고 당과 혁명발전에서 중대한 리정표로 되는 새시대 당건설방향을 제시하시였다.

새시대 당건설방향이 제시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가 대를 이어 빛을 뿌릴수 있는 만년토대가 마련되였으며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하는 집권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는 활로가 열리게 되였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만반으로 다지고 당을 혁명의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 정예화된 전위대오,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는 휘황한 진로를 펼쳐놓은 여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력사적인 기념강의가 가지는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가 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순간도 멈춤없이 련속공격전을 과감히 조직전개하여 사상최악의 시련기를 국력강화의 전성기로 반전시키며 이 땅우에 경이적인 변혁의 실체들을 펼쳐놓을수 있었다.

참으로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실력으로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시며 전당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신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올해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업적이다.

글 박의철

세계보건사에 특기할 방역대승

세계적인 대류행병의 발생초기부터 초특급의 비상방역장벽을 구축하고 완강히 견지하면서 2년나마 평온을 유지해오던 조선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되는 최중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비롯한 중요당회의들을 거듭 소집하시고 조성된 방역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과 과업, 방도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국가방역사업이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되고 지역별 봉쇄와 단위별격페조치를 비롯하여 방역전의 승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련이어 취해졌으며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이 활력있게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밤깊도록 돌아보시며 의약품수송과 관련한 강력한 실행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보내주시였다.

그이의 열화같은 사랑과 정은 온 나라에 공산주의미덕과 미풍이 차넘치게 하고 방역위기를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한 전민항전, 전민합세의 기세를 더욱 고조시켰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하달하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받고 인민군대의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수도의 약국들에 급파되고 긴급해제된 국가예비의약품들이 온 나라 인민들에게 속속 가닿았다.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방역조치들에 절대복종하고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면서 방역규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전사회적인 분위기를 비상히 고조시켰다.

전국의 수많은 의료일군들이 최대비상방역기간 현장에서 침식하면서 발열자들을 찾아내고 대책하기 위한 전주민집중검병검진과 치료사업에 모든 정성을 다하였고 2,400여명의 보건부문일군경력자들도 자원적으로 의료봉사활동에 참가하여 악성전염병과의 전쟁을 최단기간내에 결속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방역, 보건부문에서는 세계적인 악성비루스전파상황에 대처한 방역조치들을 기동적으로 조정하면서 새로운 검사기술들을 개발하고 검사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조선사람의 체질과 특성에 맞는 치료방안을 확립하였으며 의약품보장에서 신속성과 정확성, 안전성과 효률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결과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초시기 하루에 최고 39만여명이라는 유열자발생수를 기록하면서 기승을 부리던 방역위기는 80여일만에 0.0016%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치명률과 함께 제압되였다.

글 김선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진행

주체111(2022)년 5월 12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성된 방역위기 상황에 맞게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 방역체계로 이행할데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비상방역사업에서 철저히 견지해야 할 원칙과 과업들을 제기하시면서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로 격페한 상태에서 사업과 생산활동을 조직하여 악성비루스의 전파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전대미문의 보건위기속에서 2년 3개월이나 악성비루스의 류입을 막아오던 조선에서 최중대비상사건이 발생한 그때로부터 90여일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앞에 조성된 방역위기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한 원칙과 과업, 방도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으며 불철주야 방역전장들을 찾으시여 즉시적인 비상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나라의 방역사업을 지도해주신 령도문건만 해도 무려 1, 772건에 2만 2, 956페지나 된다.

조성된 방역위기상황에 대처하여 국가방역사업이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되고 각지 방역 및 보건부문에서 검병검진과 위생선전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시였다

주체111(2022)년 5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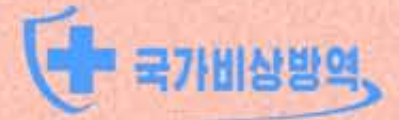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시여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동안의 방역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전국적인 전파상황을 료해하신데 이어 방역전에서 승세를 확고히 틀어쥐기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결정사항들을 시급히, 철저히 실행하여 전염병전파사태를 신속히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 진행

주체111(2022)년 5월 14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은 그 어떤 최신 의학과학기술보다도 더 위력한 방역대승의 비결, 담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조직들이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의 제일가는 공산주의적미덕과 미풍이 이 어렵고 간고한 방역대전에서 더 높이 발양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전개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자기의 중대한 책무앞에 용감히 나설것이며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것이라고 하시면서 방역전에서 반드시 대승을 이룩할 결심과 의지를 거듭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바친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 또다시 진행

주체111(2022)년 5월 15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다시 소집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력량을 투입하여 평양시안의 의약품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현 방역형세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기초하여 방역정책을 보다 효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토의하시고 당면한 투쟁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당중앙의 특별명령에 따라 방역대전의 사활이 걸린 의약품보장을 위하여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력량이 긴급투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찾으시였다

주체111(2022)년 5월 15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찾으시여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이후 무슨 약들이 공급되였는가, 약품들을 규정대로 보관하고있는가, 약국들이 24시간봉사체계로 전환하였는가,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상담은 하는가, 해열제와 항생제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주민들이 지금 제일 많이 찾는 약은 어떤 약들이며 가격은 얼마인가를 세심히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약품공급체계의 허점을 바로잡고 의약품수송과 관련한 실행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 진행

주체111(2022)년 5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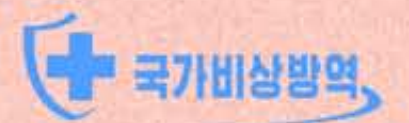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에서 국가비상방역형세속에서 당면하게는 악성전염병전파방지와 치료에 집중하는것과 동시에 전망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준비사업을 다방면적으로 적극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현시기 당과 국가의 방역정책집행과 관련한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생활분야를 안정시키기 위한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생활보장과 생활물자공급을 더욱 개선하고 주민들의 치료수요와 조건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각방의 노력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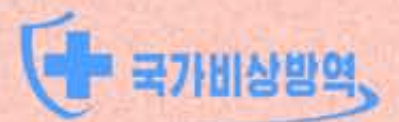
주체111(2022)년 5월 2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악성비루스와의 방역전쟁이 개시된 때로부터 9일간의 방역사업실태를 개괄분석하신데 이어 전염병전파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열자, 확진자들에 대한 의료적대책을 개선해나가는 사업과 우리 당이 제시한 제반 방역원칙과 조치들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우리의 보건방선을 굳건히 지킬데 대한 중요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비상방역전을 계속 강도높이 전개하는것과 동시에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당의 로선관철투쟁을 중단없이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포치한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을 지방별, 부문별로 료해장악하기 위한 실무지도소조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성원들로 조직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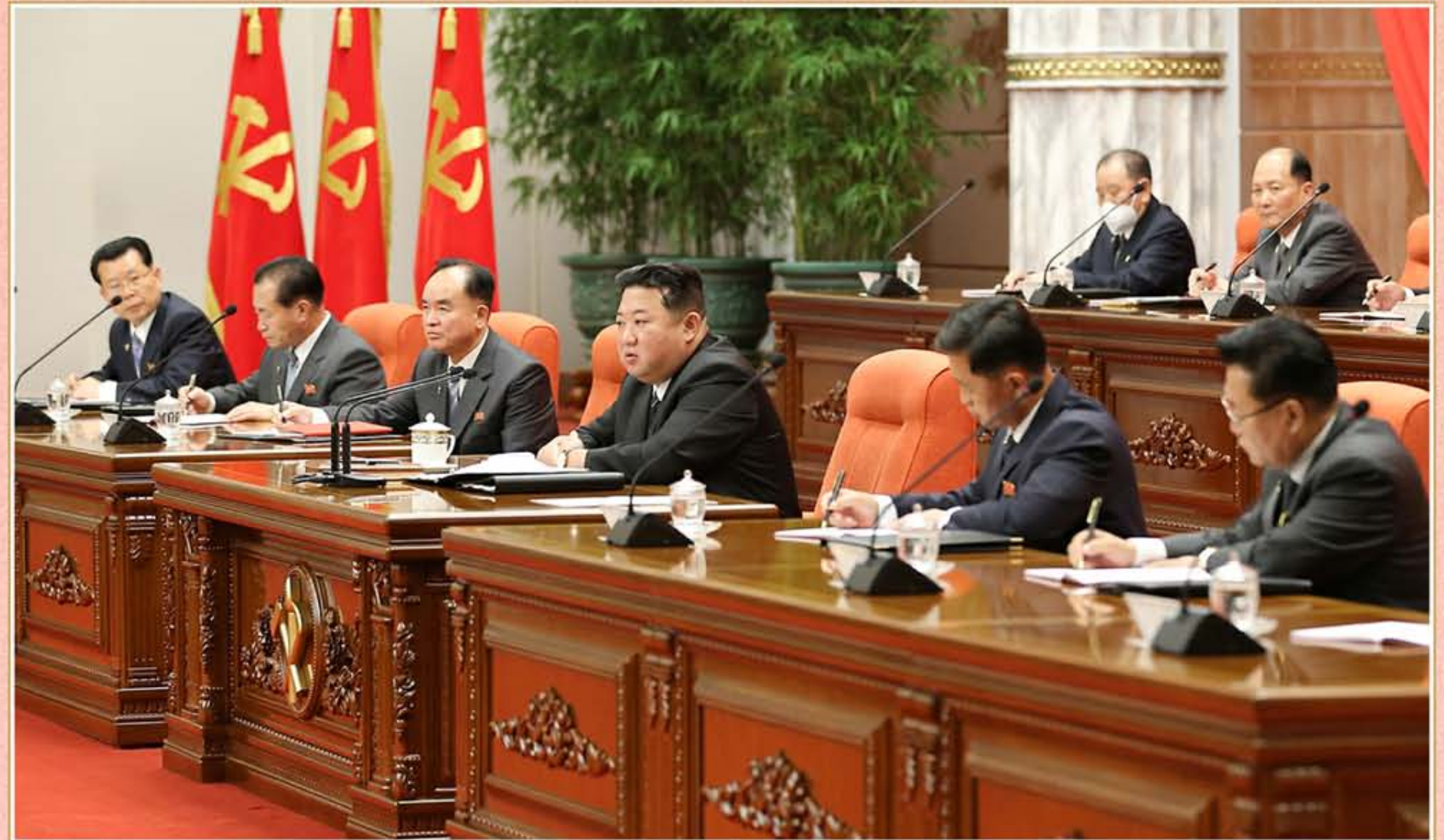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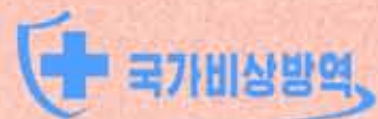
주체111(2022)년 5월 29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도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는 전국적범위에서 전염병전파상황이 통제, 개선되고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방역초기에 쌓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방역전황을 계속 안정향상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정치국은 전염병전파상황이 안정되는 형세에 맞게 방역규정과 지침들을 효률적으로 신속히 조종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심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주체111(2022)년 6월 8일-10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악성전염병위기를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을 회복하며 국가의 방역토대를 구축하는데서 나서는 전략전술적인 방략들이 명시된 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방역사업이 돌발적인 중대고비를 거쳐 봉쇄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봉쇄와 박멸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현 상황에서 우리 당과 국가앞에 나서는 급선무는 방역사업에 내재하고있는 결점들과 페단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나라의 방역토대강화를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였다

주체111(2022)년 6월 15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전하시면서 지원약품들을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주며 시당위원회가 전염병으로 앓고있는 대상세대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약품들을 빨리 전해주어 치료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태게 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11(2022)년 8월 10일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하는 력사적인 총화회의에서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라는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필승의 의지가 벼린
무적의 군력
새세대 주체병기들의 개발완성
조선의 국방공업은 올해 정초부터 새세대 주체무기들의 련이은 개발성공으로 자기의 발전모습을 뚜렷이 하였다.
지난 1월에 진행된 두차례의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가 성공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핵심5대과업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과업이 달성되였다.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의 개발완성이 지난 3월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확증되였다.
새로운 전략무기의 출현은 전세계에 공화국 전략무력의 위력을 다시한번 똑똑히 인식시켰으며 전략무력의 현대성과 국가의 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더 확고히 하는 계기로 되였다.
지난 10월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싸일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전반의 정확성과 기술적우월성, 실전효과성이 완벽하게 확인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항시적으로 위협하며 무모한 불장난 소동을 일삼는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솟구쳐오른 전략무기들의 장쾌한 모습은 그대로 조선로동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며 주체적 국방공업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글 박의철

화보 【오늘의 조선】
2022 필승의 의지가 벼린 무적의 군력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 진행
주체111(2022)년 1월 5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핵심5대
과업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무기개발부문에서
대 성 공

주체적국방공업령도사에 아로새긴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공적 또다시 만천하에 과시

주체111(2022)년 1월 11일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시험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속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특성들을 최종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발사된 미싸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는 거리 600㎞계선에서부터 활공재도약을 하면서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방위각에로 240㎞의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하여 1, 000㎞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하였다.

최종시험발사를 통하여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뛰여난 기동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되였다.

철도기동미싸일련대 검열사격훈련 진행

주체111(2022)년 1월 14일

평안북도 철도기동미싸일련대는 1월 14일 2발의 전술유도탄으로 조선동해상의 설정목표를 명중타격하였다.

강평에서는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전투동원태세가 높이 평가되였으며 전국적인 철도기동미싸일운용체계를 바로세우고 철도기동미싸일전법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전술유도탄검수사격시험 진행

주체111(2022)년 1월 17일

검수사격시험은 생산장비되고있는 전술유도탄들을 선택적으로 검열하고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나라의 서부지구에서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은 조선동해상의 섬목표를 정밀타격하였다.

국방과학원은 생산되는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전성, 운용효과성을 확인하였다.

국방과학원 중요무기시험 진행

주체111(2022)년 1월 25일,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지난 1월 25일과 27일 중요무기시험들을 각각 진행하였다.

1월 25일 장거리순항미싸일체계갱신을 위한 시험발사가 진행되였다.

발사된 2발의 장거리순항미싸일들은 조선동해상의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9, 137s를 비행하여 1, 800㎞계선의 목표섬을 명중하였다.

실용적인 전투적성능을 갖춘 장거리순항미싸일체계는 나라의 전쟁억제력강화의 일익을 믿음직하게 맡게 된다.

1월 27일 지상대지상전술유도탄 상용전투부위력확증을 위한 시험발사가 진행되였다.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들은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으며 상용전투부의 폭발위력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된다는것이 확증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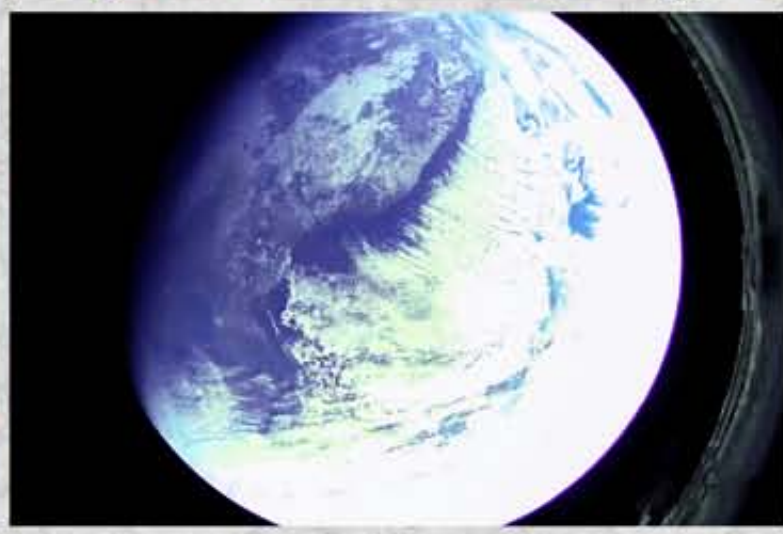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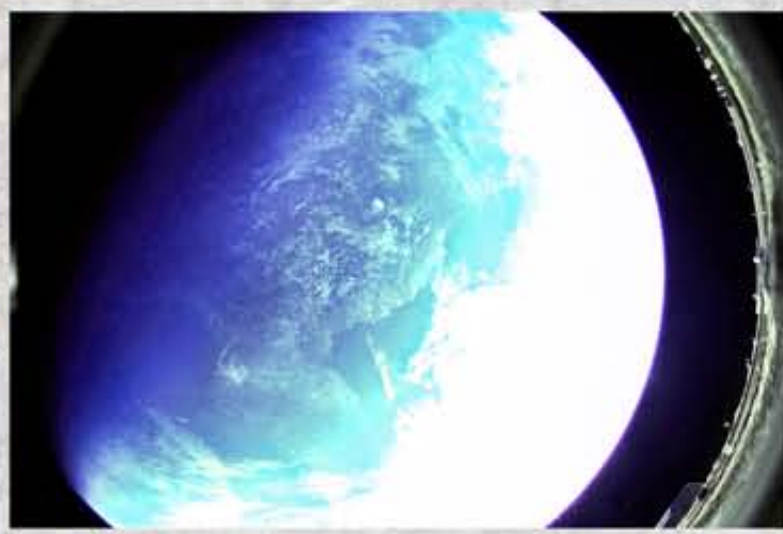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싸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 진행

주체111(2022)년 1월 30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싸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되였다.

검수사격시험은 생산장비되고있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싸일 《화성-12》형을 선택검열하고 전반적인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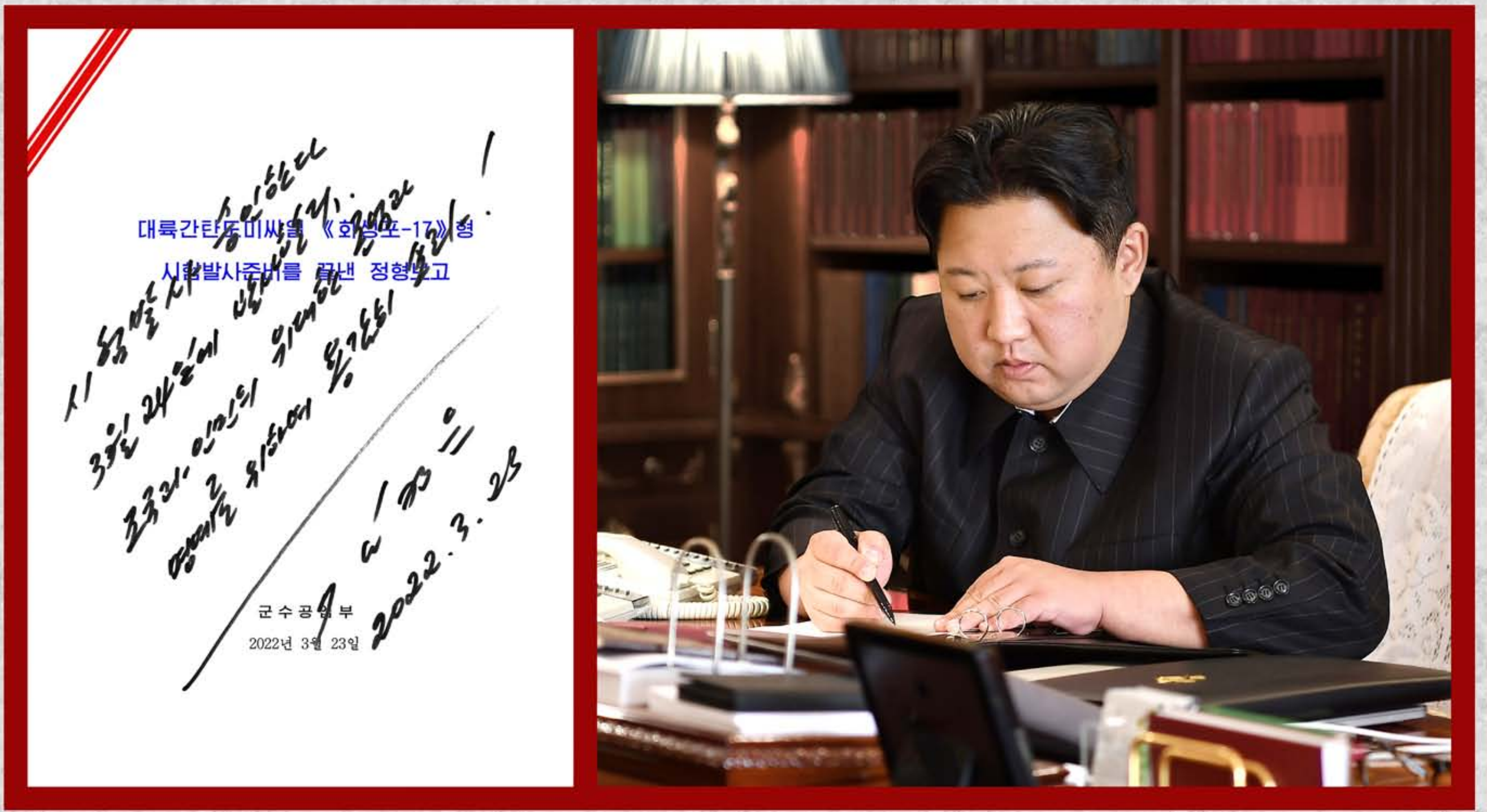
국방과학원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나라의 서북부지구에서 조선동해상으로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사격시험을 진행하였다.

국방과학원은 생산되는 《화성-12》형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전성, 운용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명령 하달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준비를 끝낸 정형보고

시험발사 승인한다
3월 24일에 발사한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

김정은
2022.3.23

군수공업부
2022년 3월 23일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주체111(2022)년 3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고각발사방식으로 진행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은 최대정점고도 6,248.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를 4,052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요구에 정확히 도달되였으며 전시환경조건에서의 신속한 운용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할수 있다는것이 명백히 증명되였다.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 단행

주체111(2022)년 3월 24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단행

주체111(2022)년 4월 16일

신형전술유도무기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당중앙의 특별한 관심속에 개발되여온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술핵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저수지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싸일발사훈련 진행

주체111 (2022) 년 9월 25일

저수지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싸일발사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9월 25일 새벽 나라의 서북부 저수지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싸일발사훈련이 진행되였다.

발사된 전술탄도미싸일은 예정된 궤도를 따라 조선동해상의 설정표적상공으로 비행하였으며 설정된 고도에서 정확한 탄두기폭믿음성이 검증되였다.

신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싸일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신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싸일발사 진행

주체111(2022)년 10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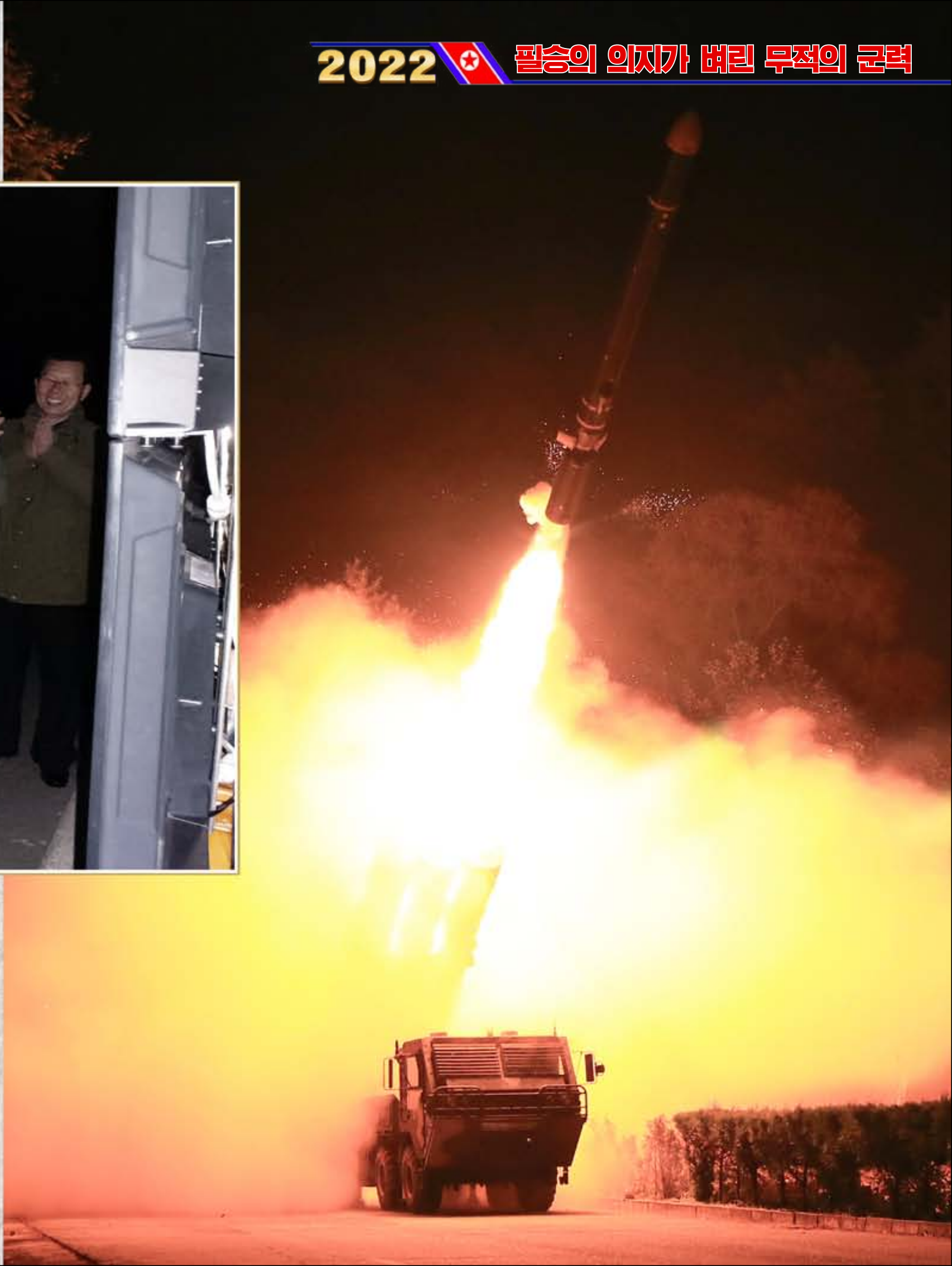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속되고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처하여 적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명백한 경고를 보낼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주체111(2022)년 10월 4일 신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싸일로 일본렬도를 가로질러 4,500㎞계선 태평양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타격하도록 하였다.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시험발사 진행

주체111(2022)년 10월 12일

발사된 2기의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들은 조선서해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비행궤도를 따라 1만 234s를 비행하여 2,000km계선의 표적을 명중타격하였다.

성공적으로 진행된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전반의 정확성과 기술적우월성, 실전효과성이 완벽하게 확인되였다.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진행

주체111(2022)년 11월 18일

주체조선의 제일국력 과시

- 공화국의 종합적국력을 과시한 열병식
- 공화국의 절대적지위를 공고화한 핵무력정책의 법화
-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경축
-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무한한 자긍심을 안고 위대한 전승 69돐 뜻깊게 기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 성황리에 진행
-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혼연일체

공화국의 종합적국력을 과시한 열병식

열병대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1(2022)년 4월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을 경축하여 지난 4월 25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국청사에 특기할 열병식이 거행되였다.

항공륙전병들이 황홀한 강하기교를 펼치고 대형국기를 나붓기며 광장에 착륙하여 열병식의 서막을 이채롭게 한데 이어 종합군악대의 입장례식이 열병광장의 경축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승리의 대열병관현악에 맞추어 위풍당당히 광장에 들어선 열병대오마다에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선 자긍심이 차넘쳤다.

광장과 잇닿은 대통로들에 정렬한 각종 첨단무장장비들은 90년전 백여정의 보병총으로 침략자들과의 결사항전을 선언했던 첫 무장대오로부터 천만배로 강해진 공화국무력의 경이적인 발전상을 보여주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자 온 광장은 격정의 열파로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축연설을 하시였다.

격정에 넘치신 그이의 연설을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희세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한없는 민족적

궁지와 혁명적무장력에 대한 크나큰 자부심에 넘쳐 우렁찬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그 환호성은 공화국의 강대함을 만방에 소리높이 구가하는 궁지와 자부심, 끝없이 부강번영할 미래를 더욱 확신하는 천만인민의 영광과 행복감의 분출이였다.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고 공화국무력 열병종대들의 장엄한 행진이 시작되였다.

군력강화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열병대원들이 터치는 《만세!》의 함성이 광장에 메아리쳤다.

이어 조선인민군 공군의 열병비행이 있었다.

태양을 옹위하는 위성들인양 오각별과 월계수를 형상한 비행종대가 눈부신 축포탄을 쏘아올리며 광장상공을 통과하였다.

장쾌한 폭음드높이 광장을 꿰지르는 초저공비행과 불줄기를 뿜으며 솟구치는 급상승비행을 보면서 관중들은 연해연방 탄성을 올렸다.

영웅적조선인민군에 대한 신뢰심이 끝없이 분출되는 속에 기계화종대들이 장엄한 열병진군을 개시하였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희세의 천출명장 **김정은**동지의 손길아래 그 누구도 멈춰세울수 없는 천하무적의 집단으로 자라난 철의 대오가 열병광장에 도도히 굽이쳤다.

공화국의 선진성과 현대성, 영용성이 응축된 절대병기들을 경탄속에 바라보며 관중들은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렸다.

지난 3월 주체조선의 절대적힘,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온 세상에 과시하며 만리대공으로 치솟아오른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의 어마어마한 모습이 출현하자 온 광장은 삽시에 환희와 격정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거대한 힘이 실려있는 세계최강의 병기의 장쾌한 흐름은 자위적국방력, 전쟁억제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더욱 강하게, 더욱 줄기차게 추진해나갈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은 공화국무력의 불패성과 강대성, 변혁적인 발전상을 다시금 만방에 과시하는 특대사변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글 리진범

초저공비행과 급상승비행을 하며
광장상공에 비행운을 수놓는
전투비행사들

기계화종대들에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1(2022)년 4월

국가의 선진성과 현대성, 영웅성이 응축된 절대병기들
백두의 혁명정신
211
212

주체111(2022)년 3월 24일 주체조선의 절대적힘,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온 세상에 과시하며 만리대공으로 치솟아오른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의 거대한 실체가 김일성광장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공화국의 절대적지위를 공고화한 핵무력정책의 법화

주체조선의 제일국력 과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1(2022)년 9월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하여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것이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핵무력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는것을 확인한데 기초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담아 공화국의 존립과 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공화국핵무력이 국가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을 억제하고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하는데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것을 국법으로 명기한것이다.

건국초기부터 세계최초의 핵사용국,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공갈을 받아온 공화국은 반제투쟁의 성새, 사회주의의 강경보루로서 온갖 적대세력의 간섭과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 자위적 국방력건설을 완강히 추진하였다.

하여 미제가 일방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던 시대를 끝장냈다.

그리고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 완전고착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장치를 갖추는 또 하나의 중대한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다.

이로써 공화국정부는 적대세력들이 조선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았다.

핵무력정책이 법화됨으로써 공화국정부의 평화애호적 립장과 국가핵무력정책의 투명성, 당위성은 더욱 확실해졌다.

공화국은 핵무력정책과 관련한 법령에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그에 대한 지휘통제, 사용원칙과 사용조건,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등 세부적인 조항들을 명백히 밝히였다.

하여 공화국핵무력이 남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령토와 인민, 자존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사용되며 따라서 공화국을 우호적으로 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나라와 인민에게는 절대로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세계앞에 보여주었다.

법령의 채택은 책임적인 핵보유국, 존엄높은 자주강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지위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었다.

혁명의 근본리익과 인민의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자주적결단과 견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의지를 뚜렷이 과시한 법령의 채택은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믿음직한 법적무기를 마련한 중대한 사변으로 되였다.

글 리진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가결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경축

4. 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0돐 성대히 경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1(2022)년 4월

올해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고 사회주의 조선의 영상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조선인민은 크나큰 환희와 격정속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대축전으로 뜻깊게 경축하였다.

조국땅 방방곡곡에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시였으며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차넘치였다.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굽이쳐흘렀다.

주체의 최고성지에서 사람들은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드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2022 주체조선의 제일국력 과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경축 대공연 《영원한 태양의 노래》와
태양절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진행되였다.

2.1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80돐 성대히 경축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태양절과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경축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수도 평양과 각 지방들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공연무대들에서도 수령흠모의 노래, 위인칭송의 노래를 더 높이 울리며 위대한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신심드높이 나아갈 조선인민의 일편단심이 힘있게 구가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들과 더불어 더더욱 강렬해지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수도와 각 도소재지들에서 열린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무도회, 야회장들에도 뜨겁게 어리였다.

뜻깊은 올해의 태양절과 광명성절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따라 끝까지 계승완성하려는 조선인민의 드높은 열의를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글 김선경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에서 성대히 진행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80돐경축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1(2022)년 2월

뜻깊은 광명성절을 경축하여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에서 축포발사가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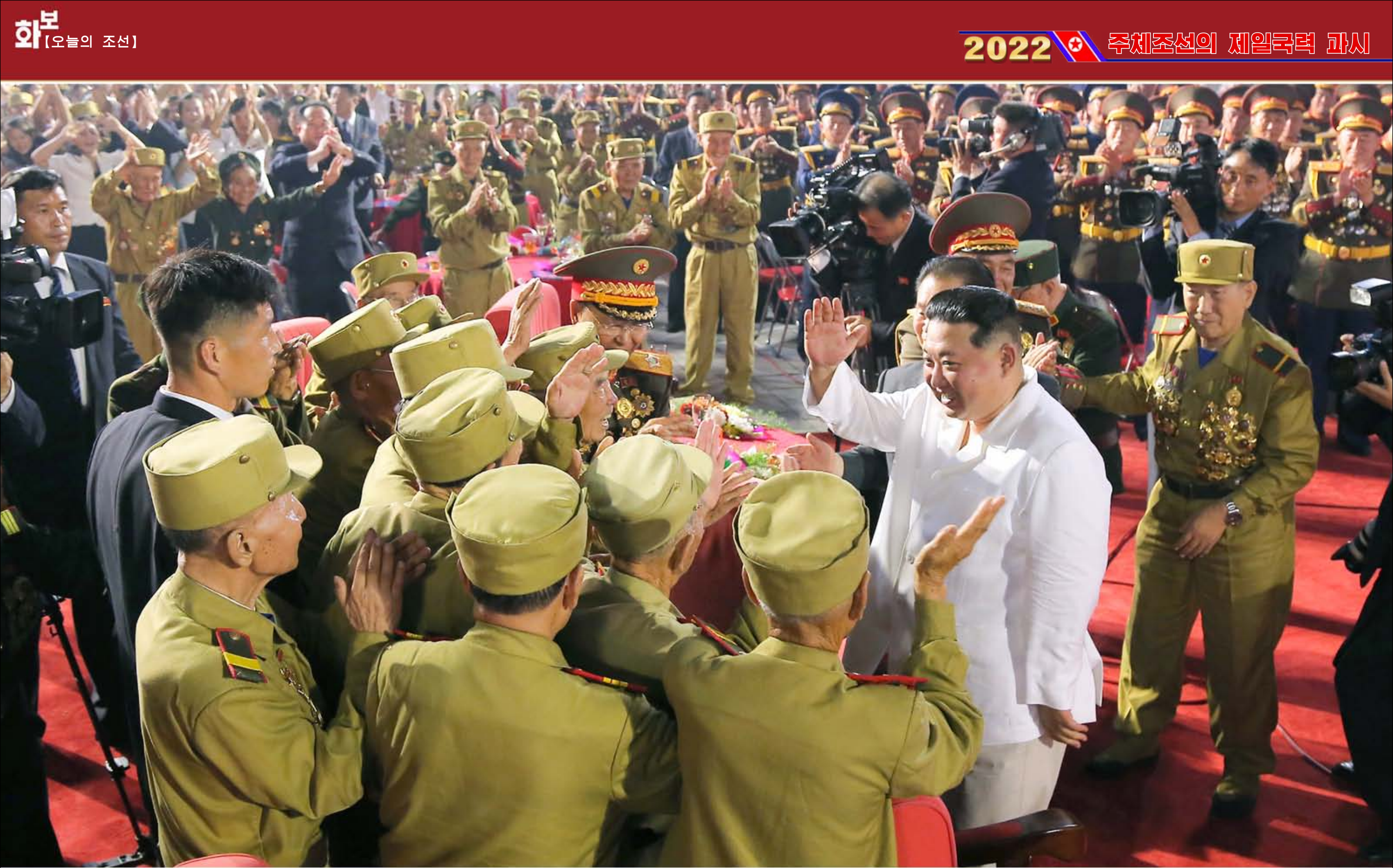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영광의 땅에 펼쳐진 황홀한 불꽃보라는 광명성절을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경축 대공연 《빛나라 정일봉》이 평양시민들의 절찬속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를 사상예술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한 공연은 광명성절을 환희롭고 뜻깊게 장식하였다.

민족최대의 명절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된 다채로운 경축행사들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무한한 자긍심을 안고 위대한 전승 69돐 뜻깊게 기념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여 공연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1(2022)년 7월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에 참가한 전쟁로병들을 축하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1(2022)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 성황리에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1(2022)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석하시여 대공연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1(2022)년 9월

화보
【오늘의 조선】
2022
주체조선의 제일국력 과시
우리가 지켜온 기발 대를 이어 지켜지리
1948
2022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혼연일체

령도자는 인민을 따뜻이 품어안아 보살피고 인민은 령도자의 인민적 풍모에 온넋이 끌리여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위대한 혼연일체의 화폭들은 주체111(2022)년에도 무수히 펼쳐졌다.

지난 2월 12일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여 수도건설의 대번영기를 더욱 빛내일데 대한 뜻깊은 연설을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로부터 며칠후 함경남도를 찾으시여 련포온실농장 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구절구절 맥박치는 연설을 하시고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목청껏 환호를 터치며 따라서는 군인건설자들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며 뜨겁게 격려해주시였다.

수도의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장들을 진감하던 열광의 환호는 그대로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신 불세출의 위인,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고 사는 이 나라 천만인민의 한없는 궁지, 무한한 행복감의 분출이였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이 진행된 그날 새집의 주인들과 함께 살림집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모습은 그대로 세간난 자식들의 집을 찾은 어머니의 모습이였다.

정녕 언제나 마음속 첫자리에 인민을 놓으시고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며 모든 행복과 영광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이 있어 이 땅에서는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참모습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꽃펴날것이다.

글 최광호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1(2022)년 4월

숭고한 위민헌신이 안아온 변혁적실체

우리식 사회주의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송화거리

송화거리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1(2022)년 4월

2022 숭고한 위민헌신이 안아온 변혁적실체

올해 동평양지구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첫 실체인 송화거리가 일떠섰다.

인민이 바라고 기다리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철석의 신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로동당시대의 부흥과 문명을 상징하는 새 거리가 태여난것이다.

방대한 계획안과 설계안들, 건설력량편성과 시공, 자재보장은 물론 건설자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쓰시고 몸소 착공식에 참가하시여 건설자들모두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올해의 3월 또다시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머지않아 입사하게 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영상을 온 나라 인민은 친어버이의 모습으로 뜨겁게 새겨안았다.

건설의 주력을 이룬 군인건설자들은 그이께서 안겨주신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지휘부기발을 휘날리며 새로운 건설신화, 건설기적창조의 선두에서 내달렸다.

건설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근로자들이 송화거리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하여 지난 4월 연건축면적이 백수십만㎡에 달하는 160여동의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등이 들어앉은 송화거리에 성대한 준공의 축포가 터져올랐으며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근로자들의 새집들이풍경이 펼쳐졌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선경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전상이 응축된 평양의 새 경관—보통강 강안다락식주택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1(2022)년 4월

수도중심부의 유서깊은 자리에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훌륭히 일떠섰다.

다락식, 다층, 소층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여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와 함께 실용성과 편리성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다락식주택구가 건설됨으로써 새로운 형식의 주택구건설의 본보기가 창조되였다.

지난 4월 수도의 각 부문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별천지같이 꾸려진 이곳 중구역 경루동에 입사하였다.

근로의 땀방울과 애국의 량심을 천만금보다 귀중히 여기며 근면한 노력으로 당과 국가를 받들어가는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제일먼저 누리게 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정책이 또 하나의 현실로 펼쳐진것이다.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새집의 주인들을 축하해주시며 오늘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의 저택이 철거된 대신 그 뜰안에 애국자, 공로자들의 행복넘친 보금자리가 마련된것을 아시면 만족해하실것이라고, 한생토록 그처럼 사랑하신 인민을 따뜻이 품어안으신것같아 정말 기뻐하실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자하신 모습은 온 나라 인민모두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으로 뜨겁게 안겨들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선경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인민에게 안겨준 사랑의 선물-련포온실농장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10. 10.)을 맞으며 련포온실농장이 훌륭히 일떠섰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계굴지의 대온실농장으로, 높은 수준에서 자동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농장, 조선식 농촌문명창조의 거점으로 희한하게 솟아난 련포온실농장은 조선로동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이고 번영의 재부이며 사회주의농촌진흥의 새로운 변혁적실체이다.

나라의 중요한 공업도시, 과학도시인 함흥시와 함경남도인민들의 남새보장문제를 언제나 중대사항으로 관심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실현을 위해 동부지구의 공군기지를 대규모온실농장으로 전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건설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은 불과 230여일동안에 사람들이 리상으로만 그려보던 거대한 온실농장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280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들과 지방의 특색을 살린 1, 000여세대의 살림집,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등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조화되여 새시대의 문명을 과시하는 하나의 대농장지구를 이루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선경

련포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1(2022)년 10월

인민군장병들 불과 230여일동안에 280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들을 일떠세우는 기적창조

생산면적 100정보

련포온실농장에는 1정보온실, 1, 000㎡온실, 500㎡온실 등 각이한 면적의 온실들이 있다.

조선동해기슭에 일떠선 련포온실농장마을은 사회주의농촌진흥의 새로운 변혁적실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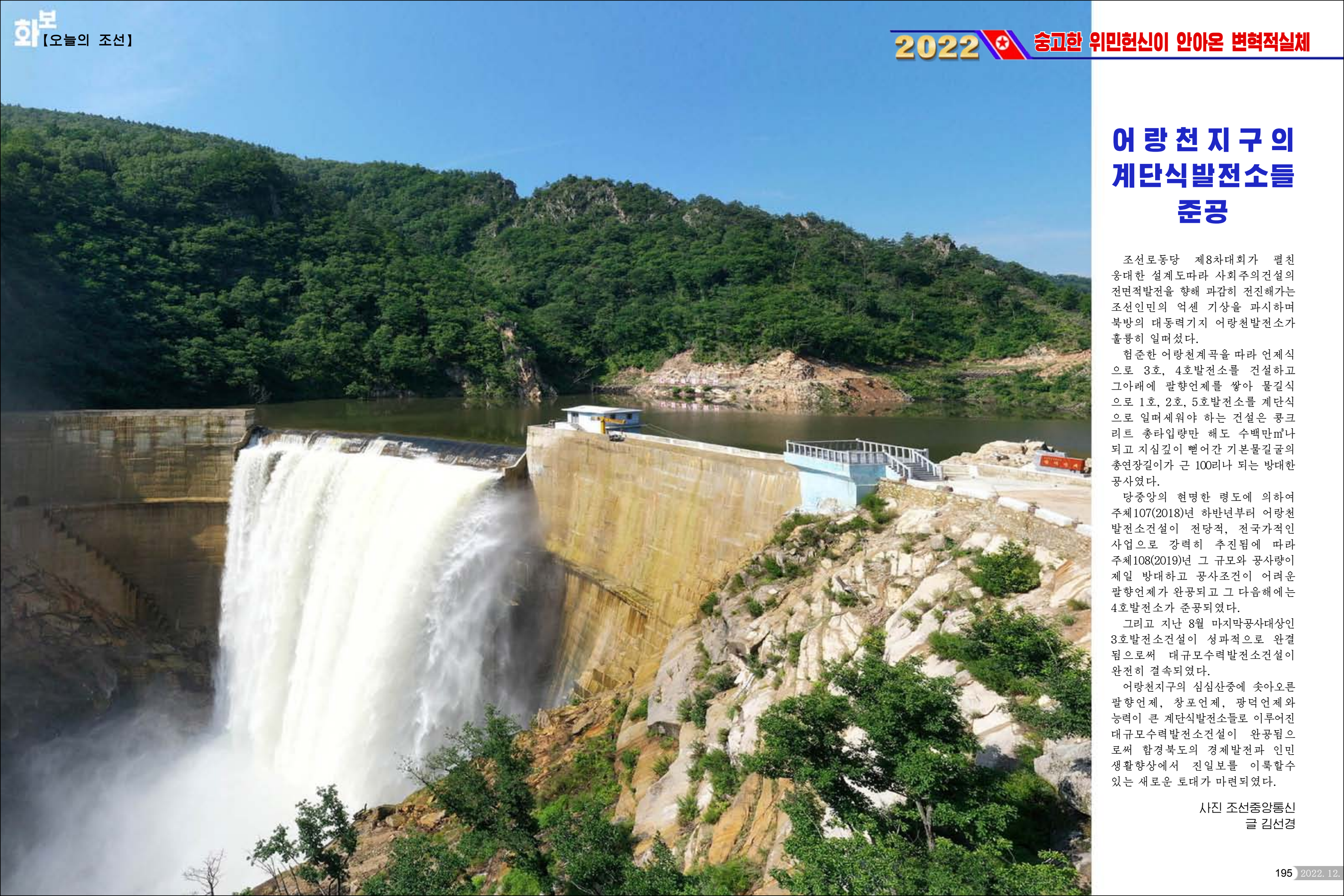
지대적특성에 맞게 건설된 마을에는 99가지 형식의 113개 호동에 달하는 무려 1,000여세대의 단층, 소층살림집들과 교육, 보건기관들, 문화후생시설들도 꾸려져있다.

온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돌려진 국가적혜택

최악의 국난이 조성된 올해에도 이 땅에서는 조선로동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를 전하는 새 전설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숭고한 위민헌신이 안아온 변혁적실체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소학교와 중학교, 대학의 신입생들에게 새 교복과 신발, 가방과 학용품이 공급되였다.

주체111(2022)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되여 국가적부담으로 온 나라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공급하는것이 법적으로 고착되였다.

어랑천지구의 계단식발전소들 준공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펼친 웅대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향해 과감히 전진해가는 조선인민의 억센 기상을 과시하며 북방의 대동력기지 어랑천발전소가 훌륭히 일떠섰다.

험준한 어랑천계곡을 따라 언제식으로 3호, 4호발전소를 건설하고 그아래에 팔향언제를 쌓아 물길식으로 1호, 2호, 5호발전소를 계단식으로 일떠세워야 하는 건설은 콩크리트 총타입량만 해도 수백만㎥나 되고 지심깊이 뻗어간 기본물길굴의 총연장길이가 근 100리나 되는 방대한 공사였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107(2018)년 하반년부터 어랑천발전소건설이 전당적,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됨에 따라 주체108(2019)년 그 규모와 공사량이 제일 방대하고 공사조건이 어려운 팔향언제가 완공되고 그 다음해에는 4호발전소가 준공되였다.

그리고 지난 8월 마지막공사대상인 3호발전소건설이 성과적으로 완결됨으로써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이 완전히 결속되였다.

어랑천지구의 심심산중에 솟아오른 팔향언제, 창포언제, 광덕언제와 능력이 큰 계단식발전소들로 이루어진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이 완공됨으로써 함경북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진일보를 이룩할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선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배려하여주신 5, 500대의 농기계들이 황해남도의 농업근로자들에게 전달

올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농촌진흥을 위한 사업에서 괄목할 성과들이 이룩된 해이다.

황해남도의 전야에 새 농기계들의 동음이 힘차게 울려퍼졌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이 총궐기하여 현시기 농산작업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농기계들을 최단기간내에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생산된 새 농기계들을 나라의 기본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 우선적으로 보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5,500대의 농기계들을 받아안은 황해남도의 농업근로자들은 지난해에 비해 한주일이나 앞당겨 벼가을을 완전히 결속하고 낟알털기에서도 1.5배의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선경

2022 숭고한 위민헌신이 안아온 변혁적실체

금성뜨락또르공장 1단계 개건현대화대상 준공

금성뜨락또르공장을 마력수가 높은 뜨락또르와 함께 여러가지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생산하는 종합적인 공장, 나라의 농기계공업발전을 견인하는 보배공장으로 꾸려 새시대 농촌혁명수행을 강력히 촉진하려는 당중앙의 구상에 따라 추진되고있는 개건현대화사업의 1단계목표가 완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을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을 확실하게 담보할 핵심공장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과 군인건설자들은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반드시 실천할 불같은 일념과 성실한 애국의 열정을 안고 견인불발의 노력으로 개건현대화사업을 다그쳤다.

현대적인 설비들과 선진적인 생산공정을 갖춘 생산건물이 일떠서고 주물직장, 주강직장, 제관직장, 단조직장 등 10여개 대상의 신설 및 개건공사가 훌륭히 결속됨으로써 성능높은 뜨락또르와 농기계들을 다량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구축되였다.

사진 라평렬
글 김선경

《천리마-1104》호

Chollima-1104

공칭견인력: 20KN
차대형식: 무틀식
최대속도: 37. 84㎞/h
총질량: 4, 700㎏
최대출력: 80. 8㎾(110hp)

각지에서 맞이한 새집들이경사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들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구상에 의해 사회주의농촌의 면모가 나날이 일신되여 가고있다.

산간지대는 산간지대맛이 나게, 벌방지대나 해안지대는 그에 맞게 건설하는것이 농촌건설에서 당이 내세우고있는 기본요구이다.

지역적, 지대적특성에 맞게 세워진 농촌건설계획에 따라 각지에서 단층, 소층, 다락식의 문화주택건설이 활기있게 추진되여 도처에 새로운 선경마을들이 생겨나고 흥겨운 새집들이 풍경이 펼쳐졌다.

사진 황정혁
글 김선경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탄산소다공정 준공

지난 8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대규모의 탄산소다생산공정이 새롭게 꾸려져 준공되였다.

나라의 화학공업구조를 국내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남흥의 로동계급은 기존생산공정을 통채로 들어내고 수많은 장치물제작과 조립, 하부망공사, 관로공사를 비롯한 방대한 과제들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도 생산공정운영의 확고한 기술적담보를 마련하고 제품의 질과 경제적실리를 높은 수준에 올려세웠다.

그리하여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공업을 완비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구상이 빛나게 관철되고 기초화학제품의 자급률을 높이며 경제와 인민생활이 실지 화학공업의 덕을 볼수 있게 하는데서 돌파구가 열리였다.

탄산소다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화학공업부문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첨단수준의 화학공업을 능히 일떠세울수 있다는 확신과 배심이 더 굳게 자리잡게 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선경

강원도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이 지방공업현대화의 본보기로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김화군에서 그 기준을 창조하도록 하시였다.

당과 국가의 중요회의때마다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쳐 끝내고 그 경험에 토대하여 전국의 시, 군지방공업공장들의 기술개건을 빠른 시일안에 완성하며 여러가지 질좋은 소비품들을 많이 만들어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사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하신 그이이시다.

그리하여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열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김화군의 읍지구에 지방공업의 표준, 본보기공장들이 일떠서 생산의 동음을 울리게 되였다.

지금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군내 인민들은 물론 도시주민들속에서도 호평을 받고있다.

지방공업현대화의 본보기로 건설된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은 조선로동당의 시, 군중시사상, 시, 군강화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사진 최원철
글 박병훈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 준공

아이스크림

ICE CREAM

평양의 대성산기슭에 식료공업부문의 표준으로 되는 현대적인 아이스크림생산기지가 일떠서 준공되였다.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건설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은 순간도 지체할수 없으며 인민을 위한 창조물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한다는 당중앙의 확고부동한 의지에 따라 국가적인 중점대상으로 추진되였다.

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터전도 잡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비상방역상황이 장기화되는 속에서도 공사가 강력히 추진될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시고 생산설비와 관리운영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청신하고아담한 건물에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이 실리있게 배치된 공장은 그야말로 구내의 수림화, 원림화가 실현된 공원속의 일터이다.

공장에서는 각종 아이스크림과 단물, 탄산음료, 차음료 등을 생산하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녀성옷전시회-2022》 진행

온 나라 녀성들의 관심을 모으며 《녀성옷전시회-2022》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평양의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은하무역국, 봉화무역국,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을 비롯한 전국의 옷생산단위들, 각지 양복점들을 포함한 540여개 단위들에서 만든 30대, 40대 녀성들의 계절옷들이 전시되였다.

계절에 따라 나이와 몸매, 기호에 맞게 시대적미감과 민족적인 형식을 배합하면서도 우아한 세련미를 살려주는 밝고 부드러운 색갈의 달린옷, 양복, 외투 등은 녀성들의 인품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정서와 풍치를 돋구어주는것으로 하여 모든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시회에는 녀성들의 옷차림에 어울리는 신발, 손가방, 머리빈침, 모자 등과 녀성들이 선호하는 화장품들, 질좋은 옷감들도 출품되였다.

전시회기간 옷가공단위들사이의 기술교류, 수요자들과 피복생산단위들과의 상담, 제품들에 대한 전문가심사, 군중심사와 함께 주문봉사도 진행되였다.

녀성옷전시회 2022

전시회는 녀성옷의 발전추세와 현대적미감에 맞는 옷차림을 적극 장려하고 보급하며 선진적인 옷설계와 가공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여 나라의 피복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키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전시회에서는 선진적인 옷설계와 가공기술로 녀성들의 인품과 세련미를 잘 살린 봉화무역국 봉화피복연구보급실, 경공업성 편직공업관리국, 평안북도 등에서 제작한 새로운 형태의 옷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시회에서는 우수한 단위들에 상장이 수여되였다.

사진 방은심
글 최광호

낸 곳: © 조선화보사 2022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